

전남대, 교육혁신과 연구역량으로 국가 균형발전 이끈다



1 전남대학교 전경
2 전남대학교 정문

전남대학교는 거점국립대학교로서 광주·전남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을 맡아왔다. 3만여명의 학생들이 3천여명의 교직원과 함께 17개 단과대학, 11개 대학원, 76개 연구소에서 배우며 연구하고 있다.

전남대는 정성택 총장의 취임과 더불어 시대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혁신에 돌입했다. 수업 방식에서부터 학문의 콘텐츠, 학제 변경 등 미래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첨단학습기법인 ▲ 프로젝트 중심 교육(PBL, Project Based Learning) ▲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융·복합 교육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 2019년 개설한 로봇공학, 미래에너지공학, 빅데이터금융공학, IoT인공지능융합공학 등 융·복합전공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부터 광주캠퍼스에 ▲ 인공지능학부 ▲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 ▲ 빅데이터융합학과, 여수캠퍼스에 ▲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 ▲ 석유화학소재공학과 ▲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등 모두 6개 첨단학과를 추가로 신설하고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전남대는 뛰어난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다. 전국 400여개 대학 가운데 비수도권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연구비 수주 10위 안에 드는 연구중심대학이다. 교원 1인당 연구비 수주액이 3년 연속 거점국립대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대형집단과제 수임도 무려 40여개, 금액으로는 3천억원이 넘는다.

전남대는 코로나19에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500여개 강

의실 가운데 300여개를 하이브리드 강의실, 즉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대면·비대면 수업이 교차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기 공간을 단과대학별로 마련하는 등 ‘안전한 학교’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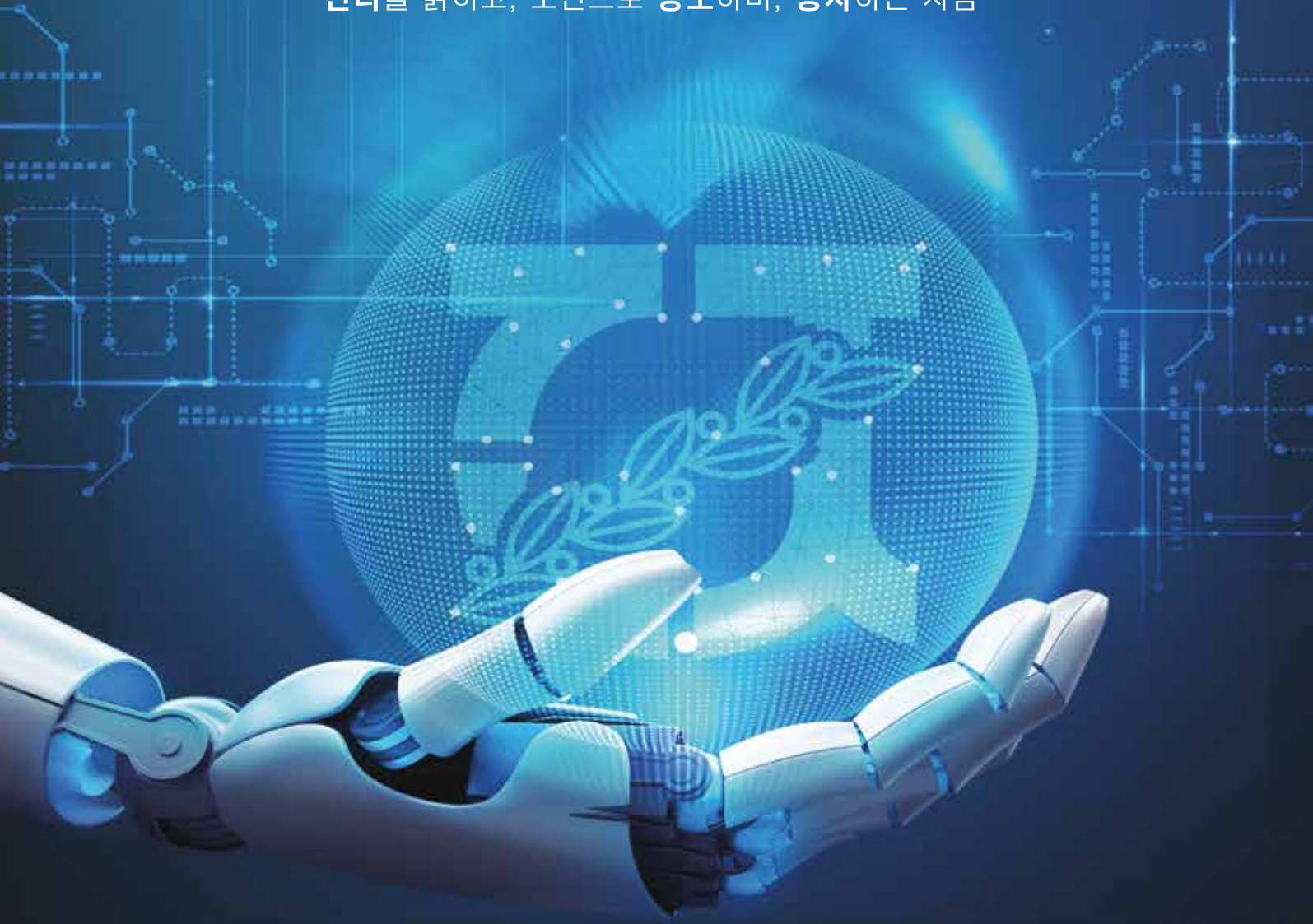
전남대 학생들은 행복한 대학문화를 만끽한다. 최근 세 번째 도서관인 ‘정보마루’가 문을 열었다. 쾌적한 공간에 첨단화된 시설로 주목 받고 있다. 총학생회가 출범하고, 학생 자치의 요람인 제학생회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곳곳에는 스튜던트 라운지가 들어서고, 캠퍼스 어디서든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와이파이(Wi-Fi) 음영지역을 완전 해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대학인 접지역이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문화·스포츠 콤플렉스’가 되도록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정성택 총장(의학박사)은 “우리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엄습으로 인해 기존의 질서와 규범 대신 새로운 가치와 기준이 요구되는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려는 학생들에게 전남대학교는 넉넉한 자양분이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⑦

다양한 라우트로 진보시대

진리를 밝히고, 도전으로 창조하며, 봉사하는 사람



2022학년도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09:00 ~ 9. 14.(화) 18:00
- 홈페이지: <https://www.jnu.ac.kr>
- 문의: 062-530-4731~4734 (전남대학교 입학과)

